

Value)’의 존재를 의미.

이 건물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이 난간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이 난간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통도사(경남 양산) 금강계단 국보 제290호

이 건물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이 난간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이 난간은 조선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일부로, 계단 양쪽에 세워진 석제 난간(石制欄干)이 특징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목조건축을 대표하는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1400년 전 창건된 이 사찰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1400년 전 창건된 이 사찰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출처: BBS NEWS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목조건축을 대표하는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1400년 전 창건된 이 사찰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1400년 전 창건된 이 사찰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석사>는 이 사찰의 대표 건물로,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1400년 전 창건된 이 사찰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목조건축을 대표하는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1400년 전 창건된 이 사찰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석사(경북 영주) 무량수전 국보 18호. 1400년 전 창건된 이 사찰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400년 전의 목재가 남아 있어 '조선의 목조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흥사(전남 해남) 천불전 보물 제1807호

천불전은 대흥사(전남 해남)의 주불전으로, 고려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청을 한 목조건축물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끝에는 연꽃모양의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문과 창에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내부에는 천불(천부처)이 모셔져 있다.

천불전은 대흥사(전남 해남)의 주불전으로, 고려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청을 한 목조건축물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끝에는 연꽃모양의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문과 창에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내부에는 천불(천부처)이 모셔져 있다.



봉정사(경북 안동) 대웅전 국보 제311호

대웅전은 봉정사의 주불로 대웅보살을 모신 법당이다. 7층의 목조건축물로서, 대웅보살의 법상을 모신 법당이다. 이 법당은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대웅보살의 법상을 모신 법당이다. 이 법당은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대웅보살의 법상을 모신 법당이다.



마곡사(충남 공주) 석가모니불괘불탱 보물 1260호

이 작품은 6세기 말, 10세기 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양식과 기법이 혼합되어 있다. 특히 17세기 말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불교 미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뉴스 기사 링크.

1. '마곡사 불' 70년 만에, 불교미술의 보물... '마곡사 불' 소개, 2018.7.2 ([관련 뉴스 기사](#))
2. [마곡사 불 70년 만에] 마곡사 불 '마곡사 불' 소개 BBS NEWS, 2018.7.11 ([관련 뉴스 기사](#))
3. [마곡사 불 70년 만에] 마곡사 불 소개 BBS NEWS, 2018.7.9 ([관련 뉴스 기사](#))
4. [마곡사 불 70년 만에] 마곡사 불, 마곡사 불 BBS NEWS, 2018.7.7 ([관련 뉴스 기사](#))
5. [마곡사 불 70년 만에] 마곡사 불 BBS NEWS, 2018.7.6 ([관련 뉴스 기사](#))
6. [마곡사 불 70년 만에] 마곡사 불 소개 BBS NEWS, 2018.7.6 ([관련 뉴스 기사](#))

7. 00 00 70, 00000 00!

0000 00000, 2018.7.9 (000_00_0000▶)

8. 0000 (0000_0000▶)

0/000
000 000000